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9일 화요일 (음 7월 7일) 제16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서남대 정상화 위한 일정 지연

배경은 교육부 구재단 계획안 요청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빚을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지지부진한 일정 추진 배경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8일 서남대 등에 따르면 서남대 임시이사회가 당초 1개의 자구계획안을 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명지병원과 예수병원의 자구계획안 2개를 모두 의결해 제출하자 교육부는 구재단이 제출한 자구계획안도 함께 임시이사회의 결정을 요청했다.

서남대 최종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최종 컨설팅도 임시이사회가 예상과 달리 2개의 자구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발생한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개의 자구계획안이 모두 임시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서남대 측이 3개 안(예수병원, 명지병원,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구재단 측 계획안만을 접수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남대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컨설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다 정상화 관련 서류가 미비한 구재단 측 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남대 관계자는 "서남대 정상화 주체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사분위가 결정하게 된다. 관선 이사회나 구 재단을 가리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분위는 정상화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교육부의 컨설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교육부는 컨설팅을 위해 3개 안을 사분위에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구재단은 한려대를 폐교하고



선제골 한방 먹이고

8일(한국시각)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치 노바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C 조별리그 예선 2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한국 황희찬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명지병원·예수병원 자구계획안 모두 제출 대학 "정상화 주체는 사분위가 결정하는 것 교육부 행정절차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서남대 의대를 폐교한 뒤 학교 기본재산 매각해 정상화 자금으로 쓰겠다는 의견서 하나만을 교육부에 밝혔지만 예수병원측은 200억원의 현금과 나머지 130억원에 대한 220억원의 담보물까지 감정평가서에 담아 관련 서류에 첨부했다"면서 "현재 예수병원과 명지

병원, 구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화 출연계획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곳은 예수병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남대 정상화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의대 정

원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투명·신속한 일정과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서남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정상화 관련 행정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내달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빚어질지 우려된다"면서 "8월까지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9월부터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시에 들어갈 수 있다. 절차가 늦어질 경우 수시모집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폐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고민형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정통직필의 사명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기장 근무 경력자 우대 해의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농진청, 유전자조작 작물 불법 재배 중단하라”

도내 시민단체들, “10품목 47종 시험 재배 중 대부분 전주·완주서… 재배시 규정 뒤 농진청이 운영하는 재배지엔 안전시설 없어”

도내 시민단체들이 유전자조작(GM) 작물의 불법 재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도민행동은 8일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 산하기관은 유전자조작 농산물 10품목 47종을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9품목 43종이 전주와 완주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GM작물 개발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재배 시 생태계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농진청이 운영하는 시험 재배지에는 철제 울타리 외에 특별한 안전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법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격리 포장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 및 외부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현재 시험 재배지는 조류와 곤충, 포유류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이고 시설공사를 하는 근로자들도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이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진청에서는 법이 규정하는 관리 방법과 운영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 관계자는 “GM작물 개발·시험재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돼야 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시험 재배지를 즉각 폐쇄하고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김영재 기자

한국이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돌입한 가운데 9일과 10일에도 이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9일(한국시각) 오후 9시부터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 64강이 시작된다.

한국 펜싱은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과 함께 새로운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정진선(32·화성시청), 박경두(32·



펜싱 정진선, 남자 에페 개인전 사격 김장미, 여자 25m서 옛 영광 노린다

해남군청), 박상영(21·한국체대)이 나선다.

특히 정진선은 런던올림픽 에페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2연속 올림픽 메달이 기대된다. 박경두와 박상영은 올림픽 첫 출전이다.

이들의 선전이 계속된다면 10일 새벽 깜짝 메달 소식을 기대해볼 만하다. 결승전은 오전 5시45분에 열린다.

같은 시간 올림픽슈팅센터에서는 여자 사격 25m 권총에서 김장미

(24·우리은행)가 대회 2연패를 노린다.

김장미는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로 주목 받지 못했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한국 선수단에게 금메달을 안겼다.

김장미는 2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장전한다. 김장미와 함께 황성은(23·부산시청)도 같은 종목에 출전한다. 결승전은 10일 오전 4시15분에 열린다. /김민근 기자

2016 리우올림픽 > 관련기사 13면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제기사의 기념관